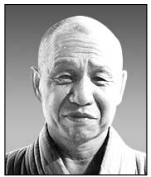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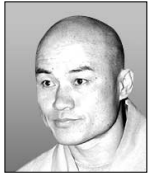


일주문



재외동포 기자대회서 강연
백담사 회주 오희 스님은 6월 1~3일 강원도 설악파크에서 열린 제4회 재외동포 기자대회에서 강사로 초빙돼 강연을 했다.



고영을 화백 초청 행차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7월 31일까지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고영을 씨 행화작품 3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연다.



'내안의 평화...' 걷기대회
평화를 위한 제주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 대호 스님은 6월 17일 제주 탐동광장에서 '내 안의 평화를 찾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우수 직업재활센터로 선정
강북장애인복지관 관장 명국 스님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선정하는 직업재활센터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다.



정소년 단오축제
대한불교정소년교화연합회 공주지부장 환성 스님은 6월 12일 공주 공산성에서 '제7회 정소년이 만드는 세시풍속 단오축제'를 개최했다.



클레몬트·웨스트대학과 교류
위덕대학교 한재숙 총장은 6월 13~19일 6박 7일 일정으로 미 서부의 클레몬트 대학과 웨스트 대학을 방문,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개관 1주년 기념음악회
시흥장애인복지관 이상호 관장은 개관 1주년(6월 25일)을 맞아 6월 29일 오후 3시 복지관에서 개관 1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제20회 불이성 생명나눔실천본부·최연식 교수 선정



제20회 불이성 수상자로 연구분야에 최연식 교수(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실천분야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사진 위)가 각각 선정됐다.



최연식 교수는 저서 <불교사의 이해>를 비롯해 '신라불교' '몽산 스님과 고려불교' 등의 다양한 논문 등 불교사학 쪽의 연구성과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과 사회봉사활동으로 불이성을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 2시 신라호텔 영빈관. 강지연 기자

'앵무새' 되지 말라는 가르침 남겨두고...

내소사 회주 혜산 스님 입적
17일 영결·다비 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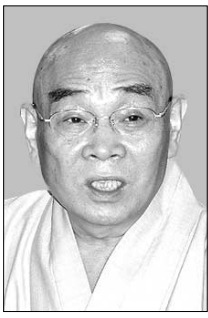
혜산 스님 영결다비식이 6월 17일 내소사에서 산중장으로 봉행됐다.

부안 내소사 회주 우암당 혜산(愚巖堂 慧山) 스님이 6월 13일 오후 3시 내소사 백안당에서 입적했다. 세수 73세 법랍 43세. 17일 오전 10시 능가산 내소사 산중장으로 엄수된 영결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1000여 사부대중이 스님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5번의 명종에 이어 교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은 법어에서 "훌륭히 선사의 시적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동방에 지혜의 별이 떨어졌과 같다"며 "두루한 청산이 모두 이 활안이니 구천에 명월이 선심을 드러낸다"고 스님의 입적을 애도했다.

이에 앞서 선운사 주지 범어 스님은 영결사에서 "큰스님이 정진하시던 모습과 철저한 무소유의 생활은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회고하고 "큰 스님의 가르침과 원력은 불래 계곡에 메아리 되어 정진대중을 이끌어 주는 법력이 되어 달라"고 기원했다. 영결식을 마친 후 스님의 법구는 만장을 앞세우고 내소사 다비장으로 운구돼 불래 제자로 돌아갔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보살운동으로 미래주도'

한국전통불교연구원장 혜거 스님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는 새로운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 중심을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에서 찾아야 합니다." 창립 4주년을 맞는 한국전통불교연구원장 혜거 스님(서울 금강선원장·사진)은 미래의 한국사상을 주도할 정신적 기둥이 바로 보살사상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 같은 보살사상을 전개하기 위해 6월 26일 '한국전통불교연구원 보살운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불교경전에서의 보살상을 현대적 개념에 맞게 정립하는 한편, 유교의 군자·대인, 서양철학의 성인상도 연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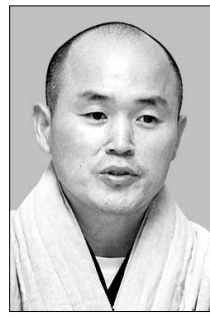
스님은 특히 보살운동을 이끌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불교를 주도할 동량을 교육시킬 도량 건립에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렸다. 불교교육을 전달할 도량 건립을 위해 현재 서울 강남구 자곡동 일대에 4천2백여 평의 부지매입을 마무리 지었다.

"불교공부에는 승·속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금강선원 10년 결사 대도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은사인 탄허 스님과 지난 1959년부터 3년간 강원도 삼척 영은사에서 '화엄경' 경전공부 결사'에 들어갔던 혜거 스님은 완벽한 간경공부가 아무진 불교교육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불교가 통합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강주스님이 음반 내 까닭은?

수진 스님 '살구꽃 피는...' CD 제작



"'부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불법의 깊고 오묘한 철학과 가르침이 녹아 흐르는 노래입니다. 무심코 부르다 보면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선과 교를 두루 갖춘 강사로 널리 알려진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사진)이 5개월여의 작업 끝에 '살구꽃 피는 여기 해인에' 라는 음반을 내놓았다. 특히 스님은 이 CD 제작을 위해 5인조 밴드 '해조음'을 결성했다.

해인사 강주를 지냈고 지금도 경전 강의로 분주한 스님이 왜 음반 제작에 나선 것일까? "찬송가풍으로 흘러가는 찬불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교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 위해서"라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바깥으로 향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 내면의 깊은 분향을 깨워내는 게 진정한 불교음악"이라는 스님은 어린이 밴드 결성까지 계획할 만큼 음악 포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20년 동안 강원도와 선원에서 정진한 끝에 차오른 내면의 에너지를 대중들에게 회향하고 싶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번 CD에 수록된 곡들의 가사를 모두 직접 썼고 작곡은 30여 년의 인연을 이어온 음악인 홍광현 씨가 했다. 특히 스님이 직접 작곡한 11분 길이의 명상곡이 눈길을 끈다.

수진 스님은 "관세음의 소리가 시방세계에 두루 퍼지길 바라는 뜻에서 밴드 이름을 '해조음'이라는 불었다"며 "시디 발매 기념으로 7월 중 해인정사에서 공연을 갖고, 결성기념 공연을 비롯한 해제련 선방 수좌들을 위한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051)202-4933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혜산 스님의 족적

우암당 혜산 선사는 1933년 음력 9월 6일 전남 영광군 백수면 논산리에서 태어났다. 고교시절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절대질명의 의문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혜안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접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서문을 읽는 순간 무릎을 치고 '일대사를 밝히는 책'이라며 밤새워 노트에 베꼈다.

58년 서울대 농대 졸업 후 혜안 스님과 3년간 편지로 문답을 나눴고, 63년 내소사 지장암에서 열린 특별정진법회에 참석한 뒤 혜안 스님과 처음 상봉한 그 자리에서 출가했다. 이후 은사 혜안 스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시봉하며 산철도 없이 정진했다.

64년 서래선림에서 수선안거 이래 제방선원에서 15안거를 성만했다. 73년 범어사에서 유족계를 수지했으며 해인총림 해인사 선원장,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조계사 주지, 국제불교교류협회 이사, 한국불교

사회연구소 이사장, 전북불교총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89년부터 93년까지 내소사 주지를 맡았으며 입적 전까지 회주소임을 맡아 보며 후학들을 이끌었다.

10년 가까이 혜산 스님을 모시고 내소사 기풍을 일으켜온 상좌 진원 스님(내소사 주지)은 "큰스님은 평소 중도를 강조하고 몸소 실천행으로 보이셨다"며 "선이라고 좋아하거나 악이라고 멀리하지 말고 이해와 복덕으로 정진하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을 이끄셨다"고 말했다.

혜산 스님은 "마음이 주가 되지만 마음을 몸을 의지해 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하면 수행도량이 갖춰져야 한다"며 20여 년간 퇴락한 내소사를 떠나지 않고 중창공사에 앞장서 오늘의 기풍을 일켰다.

또한 스님은 생전에 "남이 해놓은 것을 자기 것인양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은 세상을 더욱 혼란하게 할뿐이다"며 일체 저서를 남겨놓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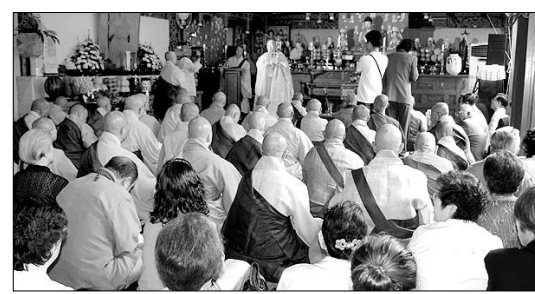
이준엽 기자

포교사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 교육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은 6월 11~12일 마곡사에서 포교사를 대상으로 2005년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 교육을 개최했다. 100여명의 포교사가 참가한 자원봉사자 교육에서는 현고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주경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일불대중사 열반 9주기 추모법회



일불선교종(총무원장 범철)은 일불 서경보 스님 열반 9주기인 6월 15일 서울 총무원에서 추모대법회와 남북통일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봉암 스님, 총무원장 범철 스님, 동국대 김용성 교수, 비자야시리 주한 스리랑카 대사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지묵 스님, 단오부채전시회



매년 단오마다 선화를 그린 부채를 전시해 수익금 전액을 불우청소년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지묵 스님의 제4회 단오부채전이 6월 11일 서울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렸다. 경구·심우 등 등의 부채 1백여점을 직접 그려 전시한 부채전의 수익금은 전액 장학금과 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쓰여진다.

불교TV와 함께하는 백두산·북경·만리장성 성지순례
2005. 7. 7(목) ~ 7. 12(화) 5박 6일 일정 금액 1,080,000 원
7월 7일: 장춘 도착 - 위황궁, 영화 촬영소
7월 8일: 백두산 등정(짚차)천지장백폭포, 소천지, 자연온천 관광
7월 9일: 백두산을 출발하여 이동중 자연 박물관 관광
7월 10일: 천안문 광장, 자금성, 경산공원
7월 11일: 만리장성(케이블카), 용경협(유람선)
7월 12일: 왕부정 거리 관광